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한국 선수단 본진이 17일 일본 주부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4경기 연속 무패’ 제주SK “아챔 가자”

진출 마지노선 3위 놓고 20일 강원FC와 K리그1 원정경기

리그 4경기 연속 무패(2승 2무)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제주SK FC가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진출권 진입을 놓고 진검승부에 나선다.

제주SK는 오는 20일 강릉하이원 아레나에서 강원FC와 ‘하나은행 K리그1 2026’ 30라운드 원정경기를 갖는다.

지난 28라운드부터 시작된 원정 6연전에서 1승1무, 최근 4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제주SK는 11승10무8패, 승점 43점으로 리그 4위에 올라있다.

3위 전북(승점 43점)과는 다득점(34-36)에서 뒤져 있고 이번 대결 상대인 5위 강원(승점 42점)과는

승점 1점 차로, 경기 결과에 따라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진출 마지노선인 3위 도약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주SK의 최근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좋다. 최근 4경기 무패에 올 시즌 원정경기에서 6승3무3패를 기록중이고 최근 5경기에서는 패배를 잊었다.

하지만 올 시즌 강원과의 성적은 2무로 승리가 없게 아쉽다. 게다가 지난 부천과의 경기에서 2경기 연속 이어지던 클린시트가 깨지며 2골이나 내준 것은 불안 요소이다.

또한 계속되는 원정경기로 이동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을 상대하는 것도 부담이다.

그래도 승리에 대한 자신감은 있다. 강원의 강투지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하는 만큼 상승세를 타고 있는 네게바와 아이아스, 치나리 등의 득점 활로를 찾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SK 코스타 감독은 지난 12일 부천과의 경기 후 강원 원정에 대해 “매 경기를 준비하는 것처럼 강원전도 준비하겠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강원은 제주SK를 상대로 이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대한민국 선수단 나고야 입성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19일 개최식
41개 종목에 1015명 파견… LA올림픽 전초전
금메달 40~45개로 일본과 격차 줄이기 목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나서는 대한민국 선수단 본단이 결전에 입성했다.

이상현 선수단장이 이끄는 본단은 17일 오후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 인근 도코나메의 주부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출국 기수로 선정된 탁구 스타 신유빈과 배드민턴 남자 복식의 간판 서승재를 필두로 이날 도착한 본단은 대한체육회 본부 임원과 종목별 선수단을 포함해 122명이다.

스무 번째 하계 아시안게임인 아이치·나고야 대회는 19일 나고야 미즈호공원 육상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10월 4일까지 나고야를 비롯한 일본 아이치현 일대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소속 45개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선수단 약 1만5000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 우리나라는 전체 43개 종목 중 크리켓과 빠텔을 제외한 41개 종목에 선수와 임원을 포함한

선수단 1051명을 파견했다.

양궁의 김우진과 사격의 이보나가 선수단 남녀 주장으로 낙점됐고, 개회식에는 조정의 김동용과 신유빈이 기수를 맡아 선수단 행진을 이끈다.

이번 대회는 2028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을 2년 앞두고 개최돼 선수들이 기량을 점검할 전초전의 역할도 여겨진다.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40~45개를 획득해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2023년 열린 2022 항저우 대회에 이어 3회 연속 종합 3위를 지키는 것과 함께 지난 두 대회 모두 2위였던 개최국 일본과의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연합뉴스



2-0으로 달아나는 득점 후 골 세리머니를 하고 있는 이강인. 연합뉴스

이강인 첫 풀타임… 시즌 2호골 작렬

오사수나전 평점 9.0으로 최우수선수 선정

스페인 프로축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강인이 시즌 2호 골을 터뜨리고 이적 첫 풀타임까지 소화했다.

이강인은 17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리아드에어 메트로 폴리티아노에서 열린 오사수나와의 2026-2027 스페인 라리가 6라운드 홈 경기에서 오른쪽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팀이 1-0으로 앞서던 후반 9분 추가골을 터뜨렸다.

오른쪽에서 골대로 향하던 이강인은 중앙의 조너선 데이비드가 찢러준 패스를 왼발로 한 번 트래핑한 뒤 반대편 골대 하단 구석을 향해 오른발 슈팅을 날려 득점했다.

지난달 20일 말라가와와 리그 개막전(2-0 승)에서 아틀레티코 ‘데

뷔전 데뷔골’을 올린 이강인은 리그 5경기 만에 2호 골을 신고했다.

이강인은 올 시즌 리그에서만 2골 1도움을 올렸다.

또 이적 후 처음으로 풀타임을 뛴 그는 팬 투표로 뽑는 경기 최우수선수(MOM)로도 선정됐다.

축구 통계 사이트 풋몹은 드리블 성공률 100%, 기회 창출 3회, 큰 기회 창출 1회, 패스 성공률 76%를 기록한 이강인에게 양 팀을 통틀어 최고 평점인 9.0점을 부여했다.

아틀레티코는 이강인의 시즌 2호 골을 포함해 4골을 터트리며 4-0으로 대승을 거뒀고 이강인은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그라운드를 누볐다. 연합뉴스

‘파죽지세’ 남자농구, 오늘 ‘난적’ 이란과 4강전

파죽지세의 한국 남자농구 대표팀이 ‘난적’ 이란을 제물 삼아 12년만의 아시아 정상 탈환을 향한 마지막 관문에 도전한다.

니콜라이스 마줄스(라트비아)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8일 일본 나고야의 아이치 인터내셔널 아레

나에서 이란과 아시안게임 결승 티켓을 두고 맞대결을 펼친다.

이란은 국제농구연맹(FIBA) 세계 랭킹 28위로, 57위인 한국보다 객관적인 지표에서 앞서 있다.

대한민국농구협회에 따르면 역대 남자 국가대표 맞대결 전적은

한국이 13승 10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12년 전인 2014년 인천 대회 결승전에서 이란을 만나 79-77로 승리하며 금메달을 목에 건 이후 내리 6연패를 당하며 고전하고 있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 4강에서도 68-80으로 패했고 직전 항저우 대회 5~8위 순위 결정전에서도 82-89로 패했다. 연합뉴스

U-20 여자축구, 아르헨티나 꺾고 월드컵 8강행

내일 이탈리아와 격돌

한국 20세 이하(U-20) 여자 축구 대표팀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U-20 여자 월드컵에서 12년 만에 8강 진출에 성공했다.

한국 U-20 여자 축구 대표팀은

16일(한국시간) 폴란드 소스노비에츠 아레나에서 열린 아르헨티나와 16강전에서 1-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한국은 2014년 캐나다 대회(8강) 이후 12년 만에 8강 무대에 다시 오르는 기쁨을 맛봤다.

2014년 대회 때는 참가국이 16개

국이었고, 24개국으로 늘어난 2024년 대회(16강) 이후에는 최고 성적이다. 한국의 U-20 여자 월드컵 역대 최고 성적은 16개국이 출전했던 2010년 독일 대회 3위다.

한국은 19일 오후 10시 같은 장소에서 중국을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올라온 이탈리아와 준결승행 티켓을 놓고 맞붙는다. 연합뉴스

제주의 맛, 그대로.
손끝의 정성, 그대로

제주의 바다와 들에서 얻은 재료,
그리고 제주웰링의 정성 어린 손맛.
몸이 편하고 마음이 쉬어가는 한 끼,
그게 바로 제주웰링입니다.



신한에코 | 제주시 죽성서길 7-10

064) 725-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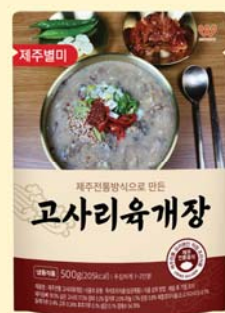
깊고 맑은 제주의 맛이 스며드는 한 끼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았습니다.

신한에코 | 제주 전통방식으로 직접 조리한 식품

따뜻하게 데워 간편하게 집밥의 맛을 느껴보세요



제주묵국



고사리 육개장



고등어조림



갈치조림



성계전복미역국



제주갈치순살비빔장



전북순살비빔장



소라순살비빔장

이런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매장에 진열해서 판매하실 분,
기존 식당 메뉴에 추가를 원하시는 식당 사장님
행사, 도시락, 단체급식 등에 추천드립니다.